

교회소식

2022. 2. 27. 239호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모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다. 처음 오신 분들은 방역절차에 따라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일: 박선정(2/9) 박재석(2/13)
 귀국: 이제희, 이재하

2. 오늘 청소년교회 코스타 참석을 위한 빈병 모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 어린이교회 달란트시장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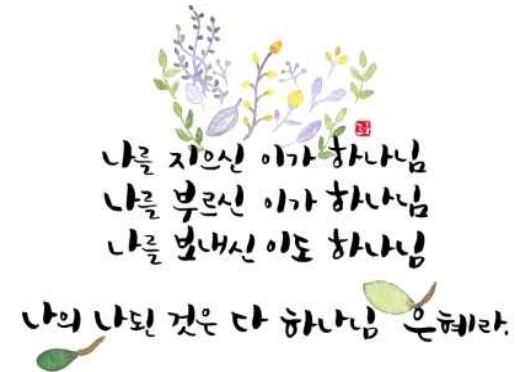
4. 신약성경읽기: 새한글 신약성경을 31일동안 역사적 시간 순으로 읽기

5. E-transfer 현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190	1,2,21,27,51	
감사 헌금	CD \$40	1,2,8	
십일조	CD \$290	1,2	
장년 출석	6	어린이 출석	9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주 일 예 배 순 서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대하 24:17-27	다함께
설 교	은혜를 잊지마시다!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다함께
헌 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축 도		김승용목사

역대하 24:17-27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라
 21 우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와 전 뜰 안에서들로 쳐죽였더라
 22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3 일 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6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목회자 칼럼

요아스는 7살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7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복일지 저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왕위에 앉은 것은 결코 그의 노력이나 능력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라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죽자 다윗의 후손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브앗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지로 요아스만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되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라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그가 아하시야의 아들이며 다윗의 정당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켜나갔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저 자동적으로 받는 놀라운 성공의 발판들을 볼 때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차별받는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다이아수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어느 것 하나 자격 없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누립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나라를 개혁하며 아달라 여왕이 무너뜨린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급격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라 여왕이 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된 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왕이 된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제사장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상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요아스의 이런 악행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 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 안 뜰에서 죽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과 제사장 여호야다를 향한 거부와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고 아람군대에 의해 죽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왕이 된 가장 큰 이유였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후손 왕들이 묻히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감찰하고 신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자리에서 여호와와 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스가랴를 언급하십시오 하니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캐나다에 나그네로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작지만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무뎠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매일 매일 살아 가는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롯이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나그네로서 주어진 오늘의 삶은 선물같은 은혜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버거운 짐, 답답하고 짜증나는 답이 없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쉽게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일의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한 걸음 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